

## 뉴스초점 / 허 내두른 명신대 학점장사

# 돈만 내면 출석 안해도 학점 퍼줘

### 작년 '시간제 등록생' 5000명...수강료 30억 걷어들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과 부실한 회계처리 사실이 적발된 순천 명신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학점장사를 통해 운영하는 기업과 같은 곳이었다. <관련기사 6면>

학점을 퍼주고, 무차별 학생을 받아들이고 수강료를 벌어들인 수법에 교과부는 물론 대 대학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명신대학교가 학점 장사를 위해 택한 방법은 돈이 되는 '시간제 등록생' 무제한 늘리기였다.

명신대는 2010학년도에 무려 5000명(연인원 2만616명)의 시간제 등록생을 받아들였다. 전남대의 경우 같은 기간 시간제 등록생은 70명, 조선

대는 40명에 불과했다.

시간제 등록생 5000명은 대부분 한 학기에 2~4개 과목을 수강신청했으며, 수강료는 한 과목당(3학점 기준) 3만9000원~15만원선이었다. 결국 1명의 등록생 당 한 학기에 최소 10만원대에서 최대 160만원까지 수강료를 걷어 들인 셈이다. 시간제 등록생의 총 수강료를 추산하면 연간 10~3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명신대는 학점 장사를 위해 시간제 등록생들의 수업 일수가 부족해도 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학점당 수강료를 과격적으로 싸게 책정해 지원자들을 유인했다. 상당수 과목의 수강료가 전남대·조

선대와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했고, 나머지 과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다. 전남대의 경우 한 학점당 수강료가 13만원, 조선대는 15만원이다. 그러나 명신대는 한 학점당 1만3000원~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학점 취득이 절실한 직장인들은 수강료가 싸고, 출석 규제가 약하면서 손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명신대로 몰렸던 것이다.

시간제 등록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대학에서 총 140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

육과정은 별도의 특강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한 대학이 아닌 2개 대학(교육기관)에서 총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 대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듣더라도 학위를 따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이 걸린다.

더욱이 시간제 등록생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 입학정원이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돼 있어 대부분 대학들은 10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명신대는 학점을 퍼주고, 수강료를 싸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으로 일반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 수강을 하기에 어려운 지원자들을 대거 모집하는 '학점장사' 수완을 보인 것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광주 이주여성 치이속큰씨 캄보디아 친정방문 동행취재기



이주여성 치이속큰씨(오른쪽)가 지난 15일 (사)희망나무 의료봉사단과 함께 캄보디아 트롬퐁콕 마을 친정집을 찾았다. 어머니 마이아씨(왼쪽)가 외손자를 껴안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년만에 만난 어머니 눈물포옹 “의료봉사단도 왔다” 마을 환호

깜봉참주=최권일기자

광주 '희망나무' 지원 우물파기도

지난 15일 오후 캄보디아 깜봉참주 감시엄시 트롬퐁콕 마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버스로 4시간을 달린 뒤 또다시 승합차나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30여 분을 더 가야 도착하는 속칭 '오지마을'에 떨어진 동네 잔치가 열렸다. 한국으로 시집 간 치이속큰(25)씨가 2년 만에 한국인 남편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마을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여 명의 한국 의료봉사단까지 데리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마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가였다.

2년 만에 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치이속큰의 어머니 마이아씨(45)씨는 둘째 딸을 부둥켜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딸의 채취와 온기가 전해질 때까지 껴안고 또 안았다. 그러곤 딸이 한국에서

남아온 생후 8개월 된 외손자 해성이를 안고 “외손자가 사위를 꼭 빼 닮았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마이아씨는 2년 전 한국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갑작스런 딸의 말에 놀랐지만 “딸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생활을 했으면”하는 생각에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단신으로 이국땅에서 생활해야 할 딸 생각에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전화로 가끔 통화하면서 딸의 소식을 들었지만, 2년 만에 외손자와 사위의 얼굴을 직접 보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마이아씨의 눈에는 이내 물방울이 맺혔다.

한국을 출발해 고향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치이속큰의 얼굴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웃음꽃이 활짝 폈다.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동네 곳곳을 돌며 아들 자랑과 한국 생활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친척들과 이웃들도 2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녀를 앞다투어 반겼다. 치이속큰씨와 동행한 의료봉사단도 이틀간 이 마을에서 무료 의료봉사와 함께 방역활동을 하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cki@kwangju.co.kr <2면에 계속>

# J프로젝트 땅값 갈등 법정으로

### 농어촌공사 구성지구 '감정평가절차재이행' 민사조정 신청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지의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J프로젝트 내 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km) 감정평가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감정평가절차재이행'을 위한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선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사법절차다.

농어촌공사측은 “양측간 협약서에 따라 감정평가법과 평가기준을 적용한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재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의 조정 신청은 구성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감정평가와

관련,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탁금(102억)을 걸고 농어촌공사에 '최고장'을 보낸 뒤 이뤄진 조치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법원에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농어촌공사 입장이지만 개발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고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데 따른 ‘맞대응’ 분위기도 읽혀진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제시됐는데도 땅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 농어촌공사는 또 J프로젝트 내 삼호지구에 대해서도 “F1경주장 부지 인근 토지인 만큼 협약에 따라 경주장 감정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것을 감정평가기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F1(포틀러원)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검토해 KAVO측에 부지대금 결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혀 경주장 양도·양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 광주 35도

올들어 최고기온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18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와 전남·북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정읍 34.9도, 영광·부안 34.7도, 전주·고창 34.6도, 장흥 33.8도, 순천·해남·고흥 33.5도, 목포 33.3도 등으로 평년보다 4.5~5도 가량 높았다.

기상청은 또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7일 내리진 폭염주의보도 18일 광주와 임실·순창·남원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북 1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해안을 뺀 대부분 내륙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포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뮤제오

이태리 명품수입기구 & 소품 / 실내장식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메리엇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동성동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엇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